

전남복지재단 대표 공모 '논란'

1차심사 후 의회 추천 인사 3명 바뀌 목포 출신 인사→동부권 후보자로 이용재 의장 "문제 바로 잡은 것"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 과정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일부가 교체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복지재단 대표 공모에 응모한 7명이 서류 전형 통과, 이날 면접을 실시했다.

하지만 서류 전형 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을 심사하는 추천위원들 중 의회 추천 인사 3명이 모조리 바뀌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임원 추천위는 지사 추천 2명, 복지재단 이사회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최근 1차 회의를 하고 공식일정과 평가 점수, 면접 기준과 원칙,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2차서류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추천 인사들이 모두 바뀌고 말았다.

복지재단 측에서 해당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한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 '상임위에서 추천해도 될 것 같다'는 회신을 받은 상임위에서 목포지역 인사 3명을 추천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장 결재 없는 추천위원들의 활동은 절차상 하자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천위원들을 순천대 보건계열교수 등 동부권 인사 3명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된 일부 위원들의 경우 "내가 무슨 자리가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가 광양인 이 의장이 도의회 추천 인사를 모두 동부권인사로 바꾸면서 '의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추천위원의 대표 공모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사와 재단 이사회 측 인사 추천 인사들의 대부분이 서부권 인사일 수밖에 없어 동부권 인사들로 균형을 맞췄다"며 "임원 추천위원 선출 기준에 맞는 인사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치러진 대표 후보자 면접을 통해 임원추천위가 고득점자순으로 2명 중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영록 전남지사가 복지재단 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도출원기자 repro333@srb.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세대수 증가·고분양가 논란

광주시 "확정 아니라 조정될 수도"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 건설사가 요구한 아파트 세대수 증가와 고분양가를 승인해 논란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중앙,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 특례사업 안전에 대한 심의를 통해 주차면수 확보, 교통약자 보행 안전대책 수립, 분양가 조정안 재검토 등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중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 측은 266세대 추가 건설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당초 한양은 지상 25층, 38개 동, 2천104세대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었다.

한양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달한 금융비용이 사업 제안 당시보다 800억원 가량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양의 주장을 수용해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했다.

고분양가도 논란이다. 한양은 34평형의 경우 분양가를 1천500만원대, 49·56·58평형은 평당 2천46만원으로 책정했다.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천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공원의 고분양가가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양은 전체 아파트 492세대 가운데 분양 281세대와 임대 211세대로 혼합해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세대만 별도로 분리해 짓겠다는 변경안도 제시했다.

이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반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양의 금융비용이 증가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수익은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공원 조성에 사용한다"며 "이번에 심의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향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는=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2일 오후 광주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정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영미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아이들 걱정말고 언제든지 맡기세요"

광역시 최초 '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 24시간 이용 가능...시간당 1~3천원

"야근이나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 돌보기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걱정말고 맡기세요. 광주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광주시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에 2일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이용섭 시장과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어린이집

연합회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긴급아이돌봄센터는 지난달 19일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행됐다.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부모가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긴급 돌봄비를 구해야 할 때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센터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

아를 둔 시민이나 광주소재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은 시간당 1천원,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시간당 3천원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광주시에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후 수요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역단체 최초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광주여성재단·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능 확대 등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원기자 ksh430@srb.co.kr

광주시, '2019 광주명장' 찾는다

기술·공예 등 37개 분야 총 5명 이내 선발

광주시에 특색 분야에서 한 길을 걸어온 기능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광주명장'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됐던 '공예 명장' 제도를 전 기능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명장을 통합해 선발·지원하는 '광주명장'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된 이래 첫 선발이다.

광주명장 신청자격은 특정분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광주 내 주민등록 기간 3년 이상, 관내 기업체에 3년 이상 종사, 유사한 분야의 명장에 선정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신청 가능 직종은 '대한민국 명장'과 동일하

게 기계·정보처리·건축·디자인·이미용·제빵·제과·공예·전통음식 등 전 분야를 망라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이다.

선정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심사, 시민 사전공개, 명장심사위원회 최종심사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최종심사가 완료되는 12월에는 최초의 광주명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광주 최고의 명장 선발이라는 점을 고려해 5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명장에겐 명장증서, 인준패, 기술장려금 1천만원이 지원된다. 광주명장 신청은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명장 신청서를 시 일자리정책관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대원기자 ksh430@srb.co.kr

전남농업박물관, 7일 '을게심니 체험' 행사

200명 모집...타작·떡메치기 체험 등

전남농업박물관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업박물관 쉼터화관 일원에서 '을게심니(웃바심)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을게심니는 지역에 따라 '을기심리', '을비심리'라고도 한다. '한해 첫 수확한 벼(을게)를 짚은 쌀로 밥을 지어 가장 먼저 조상에게 마음의 예

(심례)를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는 ▲의례마당인 조상단지 갈기, 천신의례, 을벼이삭(신체) 갈기 ▲체험마당인 을벼 타작, 찌기, 말리기, 찜기, 인절미떡메치기 ▲나눔마당인 을벼밥, 인절미, 을벼 쌀(전쌀) 음식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쌀엿장정 만들기과 다식 만들기 체험 등도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이중주 관장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한해 첫 추수감사 수확의례인 을게심니를 재현해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도출원기자 repro333@srb.co.kr

成都大學
CHENGDU UNIVERSITY

성도대학 한국사무소, GOChina에서 선발한 장학생은,
하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습니다

1. 성도대학, 중국-동맹예술대학은 학비+기숙사비+의료보험비+생활비
2. 성도대학, 일반대학 학부과정은 학비+기숙사비+의료보험비

2020년 9월 입학생, 장학금 신청 절차

I 장학기간 | 2020년 9월~2024년 7월(4년 학사과정)/ 2020년 9월~2022년 7월(2년 석사과정)

I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학력소지자(검정고시 포함), 대학생, 재수생, 대학졸업생 등

I 입학신청 | 2020년 4월 30일(1차 마감), 2020년 5월 31일(2차 마감), 2020년 6월 30일(3차 마감)

I 모집과정 | 1. 미술 및 디자인 학부 : 회화(그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2. 음악학부 : 성악(여성-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남성-테너, 바리톤, 베이스)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타악기, 플루트)
3. 영상 및 애니메이션학부 : 애니메이션, 영상TV연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중국유학

학비+기숙사비+의료보험비+생활비

☎ (062)233-9582

중국 전문 인력양성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1(금남로4가 21번지) SK브로드밴드 건너편

■ 성도대학 홈페이지 | <http://ccaen.cdu.edu.cn>

■ 성도대학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cdu.or.kr>